

중들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우리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사준  
께 문안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사부: 그럼 나는 대륙 민중들에게 감사드리며 중생들에  
게 감사드린다! (박수) 사악한 요소의 통제가 없다면 세  
인들은 각성할 것이며 자신의 사상으로 문제를 생각할 것이  
다. 예전에 천지를 뒤덮을 듯한 사악의 탄압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도를 표시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법  
에 대해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사악한 요소가 사람의 입을 이용해 한 말이다. 이  
점을 나는 아주 똑똑히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악 네  
가 무슨 짓을 하고 네가 사람을 박해하려고 생각한다면 정  
법 중 이런 일에 대한 처리에 있어 그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다.

제자: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제자는 매체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돌파  
가 아주 늦습니다. 뉴스를 쓰는 시간이 전문 업종에서 요구  
하는 시간보다 매우 많이 걸려 조급하며 자신의 心性(썸  
씽) 제고가 느린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부: 법 공부가 따라간다면 곧 돌파할 수 있다. 법 공부  
를 잘해야만 비로소 법을 실증할 수 있고, 법 공부를 잘해

# 法輪大法

## 各地講法 八

### 각지설법 8

李 洪 志

런 과정 중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관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선의(善意)로 그를 도와 개선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에게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매 수련자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기 수련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매 사람은 이런 방면에서도 마땅히 명백해야 한다.

책임자가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책임이 큰데 이 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 사부는 무수한 법신(法身)이 있어 모두 관여하고 있는바 틀림없이 그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제고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나치게 그의 문제에 집착한다면 역시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문제를 폭로할 것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 당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여, 그의 문제를 아마 당신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잠시 해결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럼 더욱 많은 사람을 이끌어 이 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좋다, 그럼 이 일을 통해 모든 문제를 몽땅 폭로시켜 당신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부의 법신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자: 전 세계 탈당 서비스센터에 늘 중국 대륙 각계 민

이 착오를 범한다. 왜냐하면, 그가 착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신(神)이며 그가 수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책임자가 착오를 범하면 다른 사람이 착오를 범하는 것보다 더욱 엄숙하게 대해야 하는가? 수련은 평등한 것으로 똑같은 것이다. 영향 면에서 본다면 물론 책임이 크며 또 어찌면 다른 수련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에 대한 사부의 요구도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련하는 개인을 놓고 말할 때는, 평등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정황에서 그가 착오를 범했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가? 대법제자는 수련 중에서 역시 대법제자의 책임자를 성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속인 사회 중에서 당신은 대법제자 책임자의 이런 사업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착오를 범하면 곧 책임자를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면 다른 사람이 또 착오를 범할 것이므로 또 책임자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며 나는 그를 단련 성숙시켜야 한다. 그럼 바꿔 말해 대법제자가 착오를 범했다고 하여 내가 곧 당신에게 대법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을 바꿔야 한단 말인가? (못 제자 웃음) 그가 다시 착오를 범하면 또 대법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을 바꾼다면 이것이 어찌 되겠는가? 수

## 차 례

|              |     |
|--------------|-----|
| 2007년 뉴욕법회설법 | 1   |
| 미국수도설법       | 97  |
| 2008년 뉴욕법회설법 | 119 |

봐도 사실 간단히 말해서 바로 일개 협조인이다. 불학회(佛學會)에 어떤 일이 있고 사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를 찾아 그를 통해 수련생들에게 일부 정보와 요구를 전달할 뿐이다. 그들 때 사람 역시 모두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대법제자는 누구든지 문제가 나타나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자 거기만 주시하고 여러분이 모두 그를 도와 수련하면서 자신 역시 수련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순이 갈수록 많아질 것인데 왜냐하면 당신이 밖을 향해 보고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자가 정말 잘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안 될 때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잘하지 못한 것이 비록 지역의 정체 제고 중의 문제와 관계가 있긴 하지만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교란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법제자들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수련에 대해 책임지고 대법에 대해 책임진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전반 지역의 상태를 아주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책임자를 놓고 말하자면 틀림없이 착오를 범할 것이다. 나의 방금 이 말을 여러분은 똑똑히 들었는가? 그는 틀림없

이 일을 한 것이 어떠한가? (박수)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수지가 맞는다. (웃음) 그러므로 한 예술단(團)으로는 모자라며 두 개 단, 세 개 단을 할 수 있는데 중생 구도가 아닌가. 이런 어린 대법제자들은 중생 구도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수련 중에서 자신을 제고하고 있다. 그들 자신도 역시 자신을 성취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 일을 하는 자체 역시 수련이며 역시 신(神)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자: 대만 지역의 많은 협조인(協調人)들이 사심(私心) 및 집착심으로 인해 수련생들을 이끌고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할 때도 이로 인해 약간의 치우침이 있으며 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데 여러 번 교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는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사존께 여쭙겠습니다. 일반 수련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다른 집단을 만들지 않고 또 협력을 잘하여 과정 중에서 자신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내 생각에 사람 마음이 너무 많아 조성된 것이다. 사람 마음으로 대법제자의 일을 하면 바로 이리하다. 수련 중,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자신을 잘 수련하기만 하면 곧 일을 잘할 수 있다. 각 지역 책임자를 놓고

## 二零零七年紐約法會講法

2007년 뉴욕법회설법

李洪志

2007년 4월 7일 맨해튼에서

빠져선 안 된다. 대법제자 역시 모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

페이텐무용학교의 학생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의 역할도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이 진상을 말할 때, 단번에 아주 많은 사람을 마주하여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법제자들이 비록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긴 했지만 전 세계 몇십억 사람을 마주하여 하기에는 어려움이 아직 매우 큰데 이 점은 여러분도 보았다. 특히 여러분이 진상을 말할 때, 보통 일대일, 혹은 몇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나 문예 공연을 한번 하면 바로 몇천 명이며 적어도 천 명은 된다. 특히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줄곧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연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기본적으로 다 보고 난 후, 사람은 100% 개변된다. 초기에 몇몇 특무가 파견되어 와서 소란을 피운 것과 종교의 난신(亂神)들이 소란을 도발한 일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모두 방지했기에 나중에는 더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사람들이 극장에서 나온 후, 대법제자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100% 변했으며 法輪功(파룬궁)에 대한 태도도 모두 변했다.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기만 해도 그가 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

대반(大班) 학생들이 지금 밖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이 한 차례 순회에서 바로 20여만 명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역시 대량의 사악 요소를 소훼한다. 전 세계 대법제자들이, 중국 대륙 대법제자들을 포함하여, 역시 그런 사악한 당 및 난귀(亂鬼) 생명을 급속히 소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뭇 신들은 구세력에 대해 한창 전면적으로 잡아 죽이고 있으며, 보이면 지옥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아도 곳곳에서 그것들을 찾아 철저히 제거하는데, (박수) 구세력이 배치한 일부 요소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두 소훼하고 있다. 현재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내가 얼마 전에 말했던 종교 중의 그러한 난신(亂神)들도 모두 청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세 변화는 매우 빠를 것이다. 하지만 사악이 깨끗이 청리되기 전까지 그것은 나쁜 짓을 할 것이며 아울러 그것은 몹시 나쁜 사람, 몹시 나쁜 그런 일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직 조금해하지 말라.

제자: 순회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페이텐(飛天)예술학교 학생들의 정법 노정 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공부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까?

사부: 페이텐예술학교는 전문학교이므로 일류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물론 기초지식 수업(文化課)이 있어야 하며, 게다가 기초지식 수업 방면에서 미국 고등학교의 전국 통일 대학 입학시험에도 참가해야 하므로 기초지식 수업도

## 2007년 뉴욕법회설법

李洪志

2007년 4월 7일 맨해튼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 여러분 수고하였다! (박수)

법회는 이미 대법제자의 성대한 모임이 되었다. 이 자리에 앉은 일부 사람들은 천 리를 마다치 않고 온 것으로 법회를 통해 차이점을 찾아내고 부족함을 찾아내어 바짝 따라가기 위함이다. 대법제자들의 개인적인 수련제고는 이미 문제가 아니며 대법제자의 원만 또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어떻게 더 많은 중생을 구도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현재 대법제자들의 원만 과정 중에서 완성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대법제자의 사명이며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며 반드시 완성해야 할 일이다.

과거의 많은 예언 역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매우 많은 사람이 도태되고 단지 아주 적은 좋은 사람만 남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오래전에 나도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오로지 나의 사람만 가질 뿐이다.”라고 했다. 서방에는 많은 전설이 있으며 『성경(聖經)』 속에도 기재가 있다. 대 심판

시기에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남을 수 있다고. 애초의 정황은, 세인들은 삼계 내의 일체중생을 포함하여 모두 삼계 내의 물질 요소로 구성되었다. 삼계 내의 물질 요소는 천상(天上)의 물질 요소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은 천상으로 갈 수 없고 다만 이 경지 속에만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정황은 역사의 끊임없는 변천에 따라 줄곧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상세한 것은 이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많은 고층 생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으로 전생(轉生)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표면은 여전히 사람의 형상이며 여전히 사람의 구조로 보이지만 실질상 세간의 가장 표면적인 물질의 미시적인 물질 속, 즉 사람 표면물질의 배후는 이미 삼계 밖에서 온 것이다. 많은 사람의 신체는 고층에서 세간에 내려온 신(神)에게 마치 한 벌의 옷처럼 입혔다.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고층에서 온 생명이다. 물론 누가 여기로 왔든지, 얼마나 높은 층차의 생명이든지, 얼마나 높은 층차의 신(神)이든지 간에, 인류사회로 오고 미혹된 사회로 진입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바꿔 말하면 이미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정황에서 층차가 아무리 높아도 모두 그의, 신의 그 일면을 나타낼 수 없으며, 그의 지체도 봉쇄되어 완전히 사람과 똑같다. 만약 사회 상태가 좋으면

사부: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강제로 아이를 끌어 소선대에 가입시키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수) 더욱이 여섯 살 미만의 아이들은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수) 중공사당이 제멋대로 하는 짓이며 (못 사람 웃음) 그것이 제아무리 날뛰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못 사람 웃음)

제자: 터키 전체 대법제자들이 사존께 문안드립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께서 구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9평’의 전파와 대법제자들의 진상 알림으로 인해 대륙의 환경은 변화가 매우 큼니다. 사존께 여쭙겠는데 우리가 현재 공무로 출장하는 등의 이유로 귀국할 수 있는지요?

사부: 아직은 기다려보자. (사부님 웃음) 전반 정법 형세가 비약적으로 표면 위로 돌파하고 있고, 아주 빠르므로 소훼(銷毀)된 사악의 요소가 특별히 많으며 정법 중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법이 아직 도래하기 전의 표면 공간 속에서 대법제자들의 정념이 아주 충족한 정황이라면



다! 그러므로 책을 많이 읽고 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박수)

제자: 저는 선양(瀋陽) 제자들을 대신하여 사존(師尊)께 문안을 드립니다! (사부: 감사하다!) (박수) 자신의 공간장(空間場)을 청리할 때, 제인(結印) 합니까 아니면 입장(立掌)합니까?

사부: 제인(結印)할 때는 자신의 사상과 신체를 청리하는 것이고, 입장을 하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표면적인 형식은 다만 발정념(發正念)을 할 때, 사상을 더욱 견정하게 하고 이 일을 더욱 전일(專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정념이 강할 때는 생각만 해도 곧 문제가 해결된다.

제자: 안후이 방푸(安徽蚌埠), 허페이(合肥), 화이난(淮南) 전체 대법제자들이 위대하신 사존께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사부님을 몹시 그리워하는데, 언제나 은사님을 뵈 수 있을까요? 현재 중국에서는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두 달만 되면 전부 소선대(少先隊)에 단체로 가입합니다. 사악한 당이 해체될 때 이런 아이들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 사회의 상태에 따라 일정한 도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해 말하고, 생명에 대해 말하면, 그래도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만약 한 사회의 도덕이 급속히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혹은 구세력(舊勢力)이 의도적으로 사람의 사회를 아래로 미끄러지게 이끈다면, 그럼 중생으로서, 고층에서 내려와 사람이 된 신을 포함하여 곧 극히 두려운 것이다.

사실 현재 중국사회는 사람의 도덕관념이 이미 당초 신이 사람을 만들 때의 사람에 대한 요구 상태에서 심하게 벗어났다. 바꿔 말하자면 이미 사람의 상태가 아니다. 듣기에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 하자면 이미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과거라면, 만약 정법 이 일 때문이 아니라면 철저히 훼손되었을 것이다. 역사상 인류의 겁난(劫難)은 한 차례 또 한 차례 거듭되었고 훼손도 한 차례 또 한 차례 거듭되었다. 전반 우주 역시 이러했다. 마치 사람의 신체가 신진대사(新陳代謝)를 하는 것처럼 세포가 노화되거나 좋지 않게 되면 대사(代謝)해 버리고 새로 좋은 것을 재생하면 그만이다. 전반 우주는 부동한 국부(局部)에서, 단지 항상 그럴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모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정상적이다.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은 최저층이다. 최저 층차의 생물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 자신이 아무리 대

단하다고 여길지라도 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안 되면 곧 도태시켜 버린다. 오늘날은 법을 바로잡고 있고 우주중생을 구도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을 아직 도태시키지 않았다. 이는 사람의 정황에 일부 변화가 발생했고 동시에 대법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위덕을 수립해야 하므로, 비로소 인류를 지속시키고 남겨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제자로 말하면, 현재 여러분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없고 중생들이 구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한 서약(誓約)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며 동시에 또한 전반 정법, 우주, 중생에게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는 대법제자가 반드시 잘해야 할 일이다.

삼계(三界)를 이야기하게 되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주겠다. 인류 이 사회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만 보지 말고 삼계 내의 생명이 스스로 어떻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떻게 앞서 가고 얼마나 성취가 있고, 얼마나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으며, 얼마나 돈이 있다고 여기며, 모든 민족, 모든 정부, 소위 성취가 있는 모든 사람이 아주 대단하다고 여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현재 인류의 일체는, 역사상의 일체와 삼계의 출현을 포함하여, 모두 이번 정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께 문안드립니다! (박수) 아울러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최후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사부: 나는 믿는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저는 자신의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뜻밖에 바른 믿음(正信)이 견정하지 못함과 미시 중에 있는 불신(不信)의 요소임을 발견하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제자는 꼭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부: 물론이다. 쪽지에서 부족한 요소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수련을 매우 잘하려는 마음도 보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오로지 법을 많이 읽기만 하면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으며 꼭 잘 수련할 수 있다. 무슨 특수한 방법이 없다. 사람마다 모두 사부가 직접 데리고 수련하면서,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에 법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줄곧 강조해 왔다. 나는 사부가 무엇이든 모두 그 대법 속에 압축해 넣었다고 말했지만, 당신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장래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정말로 이 법을 꼭 틀어쥐고 수련한다면 반드시 수련 성취할 수 있

만 늘 정진하지 않다가 또 정진하는 것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걸었던 길을 그가 다시 한 번 걸으려 하며, 다른 사람이 문의했던 문제를 그는 또 문의하려 한다. (웃음) 또 일부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책을 그리 잘 보지 않는다. 책 속에서 모두 해답했는데 그는 책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그는 또 문의하려 한다. (웃음) 어쨌든 간에 대법제자가 될 수 있고 대법 중에서 수련할 수 있다면 모두 마땅히 대단하다고 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제출하라, 나는 사부가 아닌가. 제자로서 문제가 있다면, 특히 수련의 문제라면 이처럼 엄숙한 일은 당연히 당신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당신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아래에 여러분은 예전처럼 쪽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라. 또 한 가지가 있다. 분회장(分會場)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앉은 당신들은 현재 3천여 명이나 되기에 사람마다 쪽지를 제출한다면 우린 다 읽지도 못한다. (웃음) 그러므로 그들 실무팀의 정리를 거쳐야만 비로소 건넌 수 있다.

(사부님께서 선 자세에서 자리에 앉으시자 웃음 제자들 박수)

제자: 우한(武漢) 및 선전(深圳) 대법제자들이 사부님

이다. 다시 말해 일체가 모두 이번 정법을 위해 만든 것이며 일체가 모두 이번 정법을 위해 온 것이다. 이 과정 중의 일체가 모두 이번 정법을 위해 만든 것이다. 인류의 일체, 생명, 물질,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일체가 모두 정법 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최후에 정법 중에서 바로 우주 중생들을 구도하고 대법제자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삼계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삼계는 존재할 수 없다. 인류사회는 다만 삼계 중의 한 입자에 불과할 뿐이며, 작디작은 입자 위의 사회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 속의 인류가 자기의 일을 아무리 크다고 여기고, 사람이 인류의 일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느끼며, 사람이 인류에게 아무리 큰 성취가 있고 인류가 어떠한가 발전한다고 느끼든지 간에,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각도에서 인식한 것이다. 미혹된 상태 속에서 인류사회가 어떻게 대단하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진상(真相)을 몰라서 조성된 것이다. 사람은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신은 사람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일단 중생들이 사람과 생존환경이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면 문득 크게 깨달을 것이다. 인류의 소위 발전이란 단지 육성되는 과정

에 불과하며, 동시에 최후의 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인류의 사회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임에 불과하다. 일체는 다만 인류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 중의 구체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진정한 목적은 모두 최후의 이 일보, 신의 도래와 정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1992년부터 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대법제자들 역시 당초 내내 홍법(洪法)을 해왔고, 박해 중에서 대법제자들은 또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중생을 구도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제자들이 구도하고 있는 세인들에게도 근래에 변화가 발생했다. 인류가 기다리던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혼미 속에서, 현실 이익, 가상, 거짓말에 이끌려 최후의 일체가 모두 정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믿지 못한다. 인류사회는 마치 여전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일체가 모두 아주 평온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 같다. 기실 이미 모두 정법을 위해 운행되고 있다. 신이 옴에 우주 중에서 대대적으로 펼쳐 보이진 않을 것이다. “내가 왔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 당신들은 그대로 하라. 나는 당신들을 모두 무조건 하늘로 올려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역사적으로 범한 죄를 사람은 갚아야 한다. 신을 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있다. 대법제자는 각종 업종, 각종 사회 계층에 다 있으며, 각종 업종에서 모두 중생을 구도하고 있고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대법제자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당신들이 각종 업종 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체를 잘한다면 당신은 바로 수련하고 있다. 세간의 각종 업종이 모두 당신에게 제공한 수련장소이다. 이는 또 방금 말한 그 화제로 돌아왔다. 삼계 내 인류의 일체는 모두 대법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대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대법을 위해 온 것이다. 어느 하나든, 어느 한 업종이든 모두 수련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인류사회는 바로 나의 대법제자가 수련하는 큰 연공장(煉功場)으로 어디에서든 모두 수련할 수 있다. 당신이 수련에 정진하는지, 정진하지 않는지를 볼 뿐이다. 그중에는 당신이 한 특무(特務)행위를 포함한다. (웃 사람 웃음) 모두 수련할 수 있고 중생을 구도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놓는지를 보며, 당신이 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볼 뿐이다.

방금 내가 말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런 법들은 이전에 다 말한 적이 있는데 다만 각도를 바꾸어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줄 뿐이다. 나는 아래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답해 주고자 한다. (박수)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이 많은 문제를 문의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

지금은 또 대법제자 당신들이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상대해 하고 있으며(박수) 전면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법제자가 오늘날 한 이 일체는, 당신이 무슨 항목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이 거리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든지, 아니면 영사관 앞에 앉아 사약을 폭로하든지 간에, 당신은 모두 자신을 수련하고 법을 실증하는 동시에 세인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가 하는 것이다. 보기에 는 평범해 보이지만 모두 위대하며 모두 대단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각종 업종, 각종 환경은 바로 당신들의 수련장(修煉場)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수련을 말하면, 수련하려면 절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대법제자에게 정해진 수련, 이런 방식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모두 출근하면서 수련한다 말인가? 어떻게 출가하지 않고 수련하는가?’ 그렇다. 사실 석가모니는 역사상 이미 말한 적이 있다.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는 세속을 이탈하지 않고서도 여래로 수련 성취할 수 있다고. 그럼 세속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세속을 이탈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오늘날의 이런 사회 중에서는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

내가 방금 말했고, 이전에도 나는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아니다. 사람이 법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전히 미혹 속에서 고통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은 이처럼 펼쳐 보일 수 없다. 신은 사람과 똑같이 인류사회에 출현할 것이지만, 말한 것은 곧 바로 진리이다. 바로 사람의 도덕적 최저선(底線)을 봐야 하며, 사람의 도덕관념이 아직도 그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며, 여전히 이 우주가 인류에게 규정한 근본적 도덕규범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바, 곧 중생을 구원하는 법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후의 도덕표준이 결정할 것이다. 인식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제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인식할 수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더는 선택될 수 없다. 그것은 도덕의 최저선이 붕괴되어 조성된 것으로 도덕이 없다면 사람의 표준에 모자라기 때문이다. 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동서양 사회를 막론하고 모두 사람의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사회에 이르러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것을 중시했는가? 최후에 신이 사람을 구도하려 할 때 비록 직접 사람의 도덕 척도를 재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 자신의 도덕이 타락하여 조성된 최저선의 붕괴가 당신으로 하여금 법을 인정할 수 없고 법을 인식할 수 없게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제도 될 수 없고 구원될 수 없

는 이유가 아닌가?

과거 인류사회는 줄곧 도덕관념 방면을 비교적 중요시하는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근대에 이르러 사람이 법을 얻으려 하고, 사람이 제도 받고 구원받으려 하는데, 구세력(舊的勢力)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고 일부 사람들을 도태시키려 했다. 그래서 인류사회에 공산사당(共產邪黨)이라는 이 물건을 만들어 냈다. 특히 중공사당(中共邪黨)은 인류도덕을 파괴하는 짓을 많이 저질렀으며 또한 당문화(黨文化)를 만들어 내어 사람의 사상을 개조했는데, 목적은 때가 되어 사람이 법을 얻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개변된 관념은 바로 사악한 당의 문화가 주입된 사상으로 문제를 본다. 사람의 이념과 사람의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면 바로 변이(變異)된 생명이며 바로 도태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중국 오천 년 문명역사는 사람의 일체 문화와 사상 행위를 다져주었고, 게다가 신이 체계적으로 이 일체를 육성했다. 그러나 구세력이 받쳐준 사악한 당에 의해 짓밟히고 파괴되었다. 짧디짧은 수십 년간 줄곧 중국 고(古) 문화를 부정해 왔고 중화의 오랜 문명을 짓밟아 왔다.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이념, 도덕, 문명은 최후 일보에 이르러 사람이 그것으로 시비를 분별하고, 그것으로 법을 인식하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공

출현은 바로 신전문화(神傳文化)의 출현으로서, 사실 바로 사람에게 사람이 신을 인식하는 이런 사상과정을 다져준 것이며, 사람이 신을 인식하는 문화를 다져준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서 법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무엇이 신(神)인지 모르고 무엇이 불(佛)이며 무엇이 도(道)인지 모른다면, 나의 이 법은 정말로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나는 곧 이 불(佛), 도(道), 신(神)은 어떤 모양이며 어떤 특징이며 뭘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제도하고, 무엇이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며, 제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등등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말해야 한다. 설령 말한다 해도 실천과 인식이 없고 형상이 없고 인식과정이 없는데 이 법을 어떻게 전하겠는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러므로 역사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이 일체를 모두 완성해야 했던바, 오늘에 이르러 사람은 비로소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수련이며, 무엇이 원만(圓滿)인지 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수련인가? 오늘 대법제자의 수련이야말로 진정한 수련이고 사람이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상 여태껏 있어본 적이 없다. 중생을 널리 제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神)이 이 문화를 남겨 놓았으나 그는 이 일을 결코 진정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늘날 상태, 인류의 사상, 인류의 외형, 인류의 도덕이념, 인류의 행위를 다져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 대해 실천하고 인식하는 이 과정 중에서, 사람의 문화를 다지는 동시에 물론 또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어야 했다. 무엇이 신(神)이고 무엇이 불(佛)이며 무엇이 도(道)이고 무엇이 같지 않은 신(神)인가이다. 어떻게 다지는가? 바로 이러한 신들을 세상에 내려가게 하여 사람을 제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을 제도한다지만, 내가 방금 말했듯이 제도한 것은 副元神(푸웬션)이며 어떤 사람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고 모두 세간에서 윤회하고 있다. 이 副元神(푸웬션)은 사람 외형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데, 혜근(慧根)이 좋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신(神)은 단지 사람의 副元神(푸웬션)으로서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을 뿐, 사실 진정한 이 사람의 주체(主體)가 아니며 이 사람은 여전히 윤회해야 한다. 역사는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날까지 다져온 것이다. 사람을 이런 현대사유와 행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인류 역사의 최후 이 일보까지 걸어왔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의 출현과 역사상 일부 신의

사당은 체계적이고 목적 있게 이 일체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체계적이고 목적 있게 사람들에게 사악한 당 문화를 주입했다. 그것을 ‘인간 교육’, ‘인간 개조’라고 불렀는데, 말한 것이 아주 명확하다. 당신의 세계관마저 변화가 발생하도록 해서, 중공사당이 만들어 낸 행위, 만들어 낸 사유, 만들어 낸 사상 방법으로 변해버리게 하는 것이다. 개조된 중국인들이 사악한 당이 주입한 세계관으로 인류의 시비, 선악을 인식하고, 법을 인식하고 진리를 인식하기란 정말로 아주 어려웠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 노인 세대는 중공사당의 문화가 아직 출현하기 전에 예전의 인류문화 교육과 훈도(薰陶)를 받았다. 근대에 비록 중공사당의 수작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사람의 도덕 최저선이 존재하며 기본적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현대의 젊은이들이다. 완전히 중공사당의 현대의식이 주입되었음에도 아직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무엇이든 다 안다면, 중공사당이 목적 있게 파괴한 인간관계, 가치관, 인류 도덕의 난잡한 현상을 역사 중에서 인류의 일관적인 상태로 잘못 간주하고 있으며 인류의 본능으로 잘못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진화론(進化論)이란 사악한 설에 따라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동물로 여기면서도 오히려 이는 사악한 당이 목적 있게 한 짓임을 모른다. 사람은 인류가

기다리는 것과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으나 사악한 악당사령(惡黨邪靈)은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타락시켰다. 아무것도 아닌 현대식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그들이 우주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 세대에 있어서는 몹시 두려운 것이다.

물론 정법이고, 중생 구도이며, 신은 전능(全能)하지 않은가? 불법(佛法)은 끝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 중생을 구도하는 중에 대법의 끝없는 법력(法力)을 충분히 펼치고 있다. 표면에서 본다면 대법을 막 전할 때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중생을 구원하는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았고, 문이 없을 정도로 활짝 열어놓았다고 했다. 역사상 중생의 어떤 잘못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不同)한 층차, 각 양각색 각 종류의 생명이 모두 좋지 않게 되어 층차마다 모두 각 층차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층차의 생명이 저층차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신은 신이 있는 층차의 표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당신이 사람의 표준에 부합하면 안 되며 사람의 표준에 부합한다면 당신은 곧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부동한 층차의 생명은 모두 부동한 층차의 표준에 부합하지 못했고 사람마저도 역시 사람의 표준이 아니었다. 이런 때에 중생을 구도하자면 어

갈 수 있게 하는 진법(眞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법을 전하고 예수 또한 그의 도(道)를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말한 것은 다만 사람, 그중 하나의 元神(웬선), 副元神(푸웬선)에게 듣게 한 것으로, 사람 이쪽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수련 중의 표면적인 사람과 主元神(주웬선)을 개변할 법(法)이 없었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가 어떠어떠하게 법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단지 인류의 문화를 다져주었을 뿐이다. 나는 첫 시작에 이러한 일들을 말했다. 신이 막 만들어낸 사람은, 사람의 머리가 공백인 것으로, 이 세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고 사회 실천이 없으며 풍파를 겪지 못했다. 사람은 심지어 생활 중의 사계절에 대해서도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했고, 끊임없이 각종 문화를 다지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러자면 사람에게 체계적이고도 정확한 사유방식과 도덕 이념을 주어야 했다. 이는 기나긴 역사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류는 역사상 것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야 했다. 정법(正法)할 때에 이르러 금방 삼계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다. 반드시 이 역사 과정이 있어야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역사 과정을 걸으면서 실천으로써 이성적인 장악에 이르게 해야만 비로소 인류의 오



과 현재 대법제자 수련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했다. 그들은 과거의 그런 수련이 곧 사람의 수련이라고 여기며, 과거의 그런 신을 믿는 방식이 바로 진정하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전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아는데, 서방사회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사람은 윤회하고 있다는 것을 갈수록 잘 알게 되었다. 당신이 사람 이곳에 오기만 하면 누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副元神(푸웬션) 그는 삼계 내에 있지 않지만 도리어 삼계 범위 속에 있다. 바로 내가 이 책상의 범위에 서 있지만 내가 책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의 副元神(푸웬션)은 수련 성취하여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삼계와 접근했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 다음 더욱 높은 층의 신은 그에게 하나의 갓을 씌워 천상의 생명과 영원히 격리한다. 그 자신은 이 갓을 보지 못한다. 목적은 그가 하늘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고 천상의 중생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는 신마저도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삼계로 진입했고 누가 사람 여기로 왔다면, 바로 떨어져 내려온 것으로 다시는 올라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인류에게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로 되돌아

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다시피 우주 중에는 또 정부(正負)생명이 존재한다. 부처가 있으면 마가 있고, 바른 신(正神)이 있으면 부정적인 신(負神)이 있는 것으로, 상호 간에 모두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우주 중의 필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럼 중생을 구도하려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모든 중생이 생명 과정 중에서 범한 잘못을 모두 더는 보면 안 된다. 모든 중생이 역사상 범한 잘못을 제거해버려야만 비로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반 우주가 다 안 되는데 여전히 누가 누구보다 좀 나은가를 골라선 무엇 하겠는가? 누구보다 고만큼 낫다고 해도 우주의 표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도 중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보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보는가? 바로 구도 받을 때 그가 그를 구도하는 이 법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체는 모두 이 법이 만든 것이며 미래의 생명은 이 법이 그에게 제공해 준 생활환경 속에서 생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만일 미래로 진입하려면 역시 법에 따라 깨끗이 씻기고 법에 동화되어야만 비로소 미래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이 이 법마저도 인식할 수 없다면 당연히 남을 수 없으며, 남는다 해도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의 우주는 바로 이 법이 만든 것으로 당신

이 있을 곳이 없으며 당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좀 명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이 정법 중이라 할지라도 중생이 역사상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잘못이 있든 오로지 정법기간 중생의 대법에 대한 태도와 대법제자에 대한 태도만 볼 뿐이다. 바로 이런 한 갈래 선(線)이다. 이 한 갈래 선은 사실 무슨 선이랄 것도 없는데 바로 당신이 미래로 가고자 하는가 하지 않는가이다.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 속에서, 중공사당이 만든 사악한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비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중공사당의 사악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몹시 어렵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며 세인들에게 중공사당을 똑바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이래야만 비로소 세인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들이 ‘9평’을 전해도 좋고 중공사당을 폭로해도 좋은데, 이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정치라고 하는가? 서방인의 이념(理念)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모두 정치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정치’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종교 활동은 사회활동에 속한다. 사회활동 중에서

종교 이런 활동 외에는 모두 정치활동 범주에 속한다. 정치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당신이 집에서 밥을 짓고 살림을 하는 이런 것은 정치로 여기지 않는다. 당신의 일이 사회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치로 여긴다. 이것은 자유사회의 각도에서 말한 것이다. 설사 중공사당의 변이된 정치 관념으로 말한단 해도 역시 무슨 대단할 것이 없다. 변이된 정치는 사람을 타격하는 몽둥이다. 정치를 통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될 것이 어디 있는가? 방금 내가 말했다. 이 삼계 내의 일체는 모두 대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대법을 위해 이뤄진 것이며, 대법을 위해 온 것이라고. 정법 이 일이 없으면 인류의 일체가 없다. 그럼 사유방식을 좀 바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일체는 모두 대법에 제공한 것이 아닌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제자의 수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꼭 이러할 것이다! 다만 나 리홍쯔(李洪志)가 대법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해 주는가를 볼 뿐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대법제자의 수련방식과 역사상의 수련방식은 모두 같지 않다. 이것 역시 많은 사람이 따라잡지 못하고 미혹되게 하여, 중공사당이 그에게 만들어준 사유방식으로 역사와 현대의 관계를 인식하고, 과거 종교수련